

# 프로야구 신임 사령탑 희바...허삼영 '맑음' 윌리엄스 '흐림'

삼성, 초반 연승행진...오승환 합류시 강한 마운드 운영 전망

KIA, 마수걸이 승리 아직이지만 선발 안정적...한화도 승리했

비록 연습경기지만 명예회복을 노리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의 상승세가 매섭다.

신임 허삼영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삼성이 신한은행 SOL KBO 리그 연습경기에서 3연승의 신바람을 내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반면 외국인 사령탑 맷 윌리엄스 감독이 이끄는 KIA 타이거즈는 아직 3경기에서 마수걸이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삼성은 25일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전에서 3-0 완승을 거뒀다. 올해 처음 합류한 데이비드 류케넨과 2년차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각각 4이닝, 3이닝을 무실점으로 책임지며 힘을 보탤 예정이다. 여기에 권오준, 임현준, 우규민의 효과적인 이어던지기로 상대 타선을 무실점으로 묶었다.

박리그 필워키 브루어스 출신의 내야수 타이러 살라디노와 함께 지난해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최우수 타격상에 빛나는 루키 김지찬 등이 초반 상승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

아직 초반이지만 전력분석팀장 출신인 허삼영 감독도 적재적소에 맞는 선수기용을 통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고 있다. 정계로

인해 시즌 초반 출전할 수 없는 '골판대장' 오승환이 합류한다면 더욱 강한 마운드를 운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아직까지 '윌리엄스호'는 3경기서 1무2패로 승리를 수확하지 못했다.

양현종, 애런 브룩스가 있는 선발 마운드는 안정적이라는 평가지만 아직 불펜이나 타선이 올라오지 않은 모습이다. 특히 지난 23일 대전 한화전에서 6-0으로 리드하던 경기를 6-6 동점으로 마친 것은 아쉬운 장면이었다.

최원준(타율 0.556), 유민상



(0.429), 이우성(0.429) 등은 기대 이상이지만 최형우(타율 0.200), 나지완(0), 김주찬(0) 등 베테랑들의 타격감이 추후하고 있다.

이 밖에 지난해 최하위에 머물렀던 롯데 자이언츠는 준수한 방망이를 앞세워 2승1패를 기록 중이다. 새롭게 팀을 맡은 허문회 롯데 감독도 순항하고 있다.

FA를 통해 데려온 안치홍(타율



0.714)과 함께 트레이드로 합류한 포수 지성준(타율 0.800)이 맹타를 휘두르고 있다.

공격력이 좋은 지성준과 수비가 안정적인 정보근의 주전 안방마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강철 감독이 부임 2년 차를 맞이한 KT 위즈도 소형준 등 루키들의 활약을 앞세워 2승1패로 기본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다.

반면 지난해 9위에 그쳤던 한화 이글스는 아직 1무2패로 연습경기 첫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손혁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키움 히어로즈도 2패 뒤 첫 승을 거두며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다.

10개 구단은 내달 1일까지 연습 경기를 가진 뒤 다음달 5일 개막전에 나선다.

## '조성원 감독 체제' 프로농구 창원 LG 새 출발

선수 친화적인 지휘스타일...김시래·강병현 "빨리 적응하고 믿음에 보답"



프로농구 창원 LG 세이커스 감독에 선임된 조성원 감독(왼쪽 세번째)이 27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선수들에게 꽃다발을 받은 뒤 포아티팅을 외치고 있다.

조성원(49) 감독 체제로 다시 시작하는 프로농구 창원 LG. 선수들의 기대감도 엇보였다.

조성원 신임 LG 감독은 27일 서울 논현동 KBL센터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조 감독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주장 강병현을 비롯해 김시래, 조성민, 박정현이 LG 선수단을 대표해 참석했다.

선수 친화적인 지휘스타일로 유명한 조 감독에게 선수들의 기대감도 남달랐다. 최근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기대해볼 재목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 LG로서는 이들의 기

량을 얼마나 이끌어낼 지가 신임 조 감독에게 주어진 과제로 꼽힌다.

조 감독은 "선수들과 대화를 많이 할 생각이다. 서로 거리를 좁힌다면 목표인 우승에 더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훈련량과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 집중력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선수들의 개인훈련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훈련량이 아닌 훈련의 질에 초점을 맞췄다.

여러모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 주장 강병현은 "(새) 감독님이 선수들 사이에서도 워낙 성품이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추구하시는 농구를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우리팀) 조금 더 밝고 재밌고 스피디한 농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빨리 감독님이 원하는 농구를 캐치하고 적응해야 할 것"이라며 "돌아오는 시즌, 팬들을 다시 체육관으로 부르는 농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명지대 선후배로서 이제 사제지간의 인연을 맺게 된 김시래도 "선수들의 생각을 잘 들어주시는 분으로 들었다. 선수들도 감독님의 믿음에 보답해야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김시래와 조 감독은 학번차이는 18년이나 나지만 명지대를 대표하는 신구 농구스타인데다 같은 스피드 농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김시래 역시 "제 장점이 스피드인만큼 빠르고 공격적인 농구를 펼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줄어드는 훈련량에 대해서는 "감독님마다 스타일이 다른 부분"이라면서도 "개인훈련으로 부족한 점을 채워야 한다는 말씀에는 공감했다. 감독님의 생각과 선수들의 의지가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뉴스

## 개막 앞둔 K리그, 선수단 전원 코로나19 전수 검사

등록 선수·코칭스태프·심판·경기 감독관 등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오는 5월 8일 '하나원큐 K리그 2020' 개막을 앞두고 K리그 22개 구단 선수단 및 코칭스태프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연맹은 "2020시즌 개막 전 전수검사를 통해 모든 선수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대상자는 총 1142명이

며, K리그 등록 선수, 코칭스태프, 선수단과 밀접 접촉해 업무를 수행하는 팀스태프, 심판, 경기 감독관 등이 해당 된다.

검사는 각 구단이 연구지역 내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하고, 소외 비율은 연맹이 전액 부담한다. 또한 급중으로 검사를 완료, 5월 1일까지 연맹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선수단은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양성 판정이 나온 선수와 소속 구단은 최소 2주간 자가격리 대상이 되고, 2주 후 재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은 선수는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연맹은 리그 개막을 앞두고 각 구단에 선수단 내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시 대응 매뉴얼 전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기 운영 매뉴얼 제작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황희찬, 또 토트넘 이적설... "모리뉴에게 유용할 것"

황희찬(24·잘츠부르크)이 다시 한 번 토트넘의 영입 후보로 거론됐다.

영국 축구매체 풋볼런던은 26일(현지시간) "이적료 2억파운드(약 3050억원)가 책정된 해리 케인(27)이 팀을 떠나면, 토트넘은 6명을 노릴 수 있다. 이중 황희찬도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황희찬은 지난해 9월 토트넘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토트넘은 잘츠부르크 경기에 스카우트를 파견, 황희찬의 경기를 지켜봤다.

6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고 있는 케인은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벤투스 등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일부 영국 매체에서는 다니엘 레베 토트넘 회장도 케인의 이적을 허락했다고 보도했다.

풋볼런던은 "잘츠부르크는 지난 1월 엘링 홀란드(도르트문트), 미나미노 타쿠미(리버풀)를 이적시킨 바 있다. 황희찬이 다음이 될 것"이라며 "황희찬은 생산적인 공격수로, 올 시즌 오스트리아리그 14경기에서 6골7도움을 올렸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도 3골을 넣었다"고 밝혔다.

이어 "황희찬은 중앙은 물론 양쪽 측면에서 뛸 수 있다. 그의 다



재능함은 조제 모리뉴 토트넘 감독에게 유용할 것"이라며 "토트넘 공격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지리산과 섬진강의 풍요로움을 담은 구례군 로컬마켓

# 구례군 로컬마켓

www.guryelocalmarket.com

구매 문의 ☎ 061)780-8294